

이달의 농업기술



청결, 질서, 친절, 봉사
『*Oh!* YEOSU 4대 시민운동』

글 싣는 순서

- 기 고 문 / 2~3
- 특집기사 / 4~6
- 노지채소 / 7~8
- 과 수 / 9
- 특용작물 / 10~11
- 농업경영 / 12
- 농기계 임대사업 / 13
- 웃으며 살아 갑시다 / 14
- 농업체험학습장 / 15
- 이달의 소식 / 16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 우리 농업의 미래입니다.”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김동길

인간은 무엇으로 생명을 유지하는가?

공기 · 물 · 흙 · 햇빛 등으로 자연과 환경이 공존하며 생명을 유지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나 무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토양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 등의 사용으로 산성화 되어 생명력을 잃어 가고 있으며 산성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섭취하는 동물이나 인간도 체질이 산성화 되어 가고 있어 농작물 · 동물 · 인간 모두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다.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야 하며, 한 · 미 FTA가 발효되고 한 · 중 FTA 협약준비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입농산물의 대거 유입에 대비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웰빙 열풍으로 소비패턴이 다양화, 고급화되면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각종 농약, 화학비료 사용으로 환경호르몬이 증가하여 기형아 출생, 피부병 등 다양한 희귀 병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남성들의 생식능력 저하로 불임부부가 증가되고 있어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찾는 식품소비 대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농업 · 농촌이 살길은 자연환경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나눌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며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농산부산물 등 충분한 유기물 공급으로 흙을 살리는 토양 환경 관리 자세가 농사꾼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자연생태에서 얻어지는 천연자재의 효율적인 이용만이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친환경농업 성공열쇠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친환경농업?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농업!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지속해 왔던 화학비료·농약·제초제 없던 시절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농촌에 있는 그대로 가축분뇨·인분·퇴비를 이용한 자연농법의 농사방법!

우리 선조들은 당시의 농경문화이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지혜롭게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행해 왔던 것이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단순한 식량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도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먹 거리를 생산 공급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모든 농업인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업의 길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요 후손 만대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농토를 불려주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의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업! 우리농업의 미래입니다.



모내기 역사를 알면 벼농사가 보인다!

– 적기 모내기가 쌀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

1. 모내기 역사의 개요

우리나라에서 모내기에 의한 벼농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 高麗史>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고려말 공민왕 18년(1292)에 벼씨 대신에 모를 키워 심는 모내기 재배법이 사용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미 고려시대부터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내기가 보급되기 이전까지는 직파법에서 발생하는 냉해, 관리면적이 넓은 데서 오는 과도한 노동력, 특히 제초문제가 심각했다. 그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방편으로 모내기법이 가장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가뭄이 매년 겹쳐 관개 문제로 실패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고려시대 때부터 시행된 농법이기는 하지만, 수리시설의 미비로 조선 전기까지는 삼남지방 일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었을 뿐이었다.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부터였으며, 《농가 집성》에서 모내기법의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수리행정 · 수리시설등이 강화되어 물부족 문제가 해결되자 18세기까지 급진전되어 영 · 정조 때부터 순조(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전국 논의 70~80%에 이르는 면적이 모내기를 통해 재배 되었다.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 아시아 대부분의 벼농사 지대에서 모내기를 통한 벼 재배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아시아 · 아프리카의 일부지역과 미국의 벼농사지대에서는 직파재배가 실시되고 있다.



▶ 김홍도 모내기 그림(조선시대)

2. 손 모내기 (혁신적인 농법)

조선 후기에 이르러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 보급된 것은 직파법보다 제초작업이 간소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면서도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모작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종자를 절약할 수 있었다.

이앙법 또는 모내기는 모판에서 짹을 틔운 후 모를 논에 심는 농작업을 말한다. 씨뿌림 자리가 작고, 잡초 손질 하기도 쉬워 관리하는데 편하다. 하지만 모내기 철 가뭄에 주의하여야 하고, 모내기 철 노동력이 많이 듦다는 단점이 있다.

모내기법을 논경종법으로 채택하였을 때 농민이 거둘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은 역시 제초노동력의 절감이었다. 또한 모내기법의 채택으로 일어나는 노동력의 집중적인 투입, 즉 모내기에 필요한 대규모 노동력의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노동 조직으로서 두레의 형성이라는 농업여건의 변화가 나타났다.



▶ 손 모내기

3. 기계모내기

1970년대 중반 새마을운동이 전국을 휘감고, 산업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부로서는 북한에서도 수동형 이앙기로 이앙하는데 극심한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 자존심의 문제가 제기되어 1977년 일본에서 보행형 이앙기를 수입하고 연구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농촌에서는 기계로 심고나면 결주 및 뜯모, 넘어진 모 때문에 호응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 승용기계이앙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일할 노동력이 감소되고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기계이앙은 필수사항으로 되었고 숙련되면서 문제점들도 조금씩 해결되어 나갔다. 초창기 보행형 이앙기 작업에서 승용이앙기 작업으로 발전하면서 본답 초기 농작업의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4. 포트육묘 모내기

쌀 수입 개방과 고령화·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벼 재배농가에 커다란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현실에서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최근 새로운 농법중에 포트육묘 모내기가 보급되고 있다.

친환경 포트육묘 모내기는 포트식 플라스틱 파종상자에 볍씨를 2~3알씩 파종해 벼를 육묘하고 전용 이앙기를 이용해 3.3m²당 50~60주를 동시에 모내기하는 재배방법이다.

이를 이용하면 산파상자에 상토가 1/4 절감되고 볍씨는 1/2 절감되며, 이앙 후 활착과 분열이 기존 재배법보다 빨라 우렁이가 어린 모를 먹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친환경 왕 우렁이 농법에 적합하다. 물을 깊게 담수할 수 있어 잡초 방제 효과가 높고 도복에도 강해 친환경 재배에 유리하다.

다만 포트 육묘파종기 및 이앙기의 가격이 고액이라 개별농가가 구입하여 사용하기는 문제가 있음이 단점이다. 대규모 영농규모를 갖춘 농가 및 단지에서 공동구입하거나 우리시 임대사업 기종으로 확보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은 올해 처음 돌산읍 둔전리 친환경인증기반조성단지에서 기계를 임대하여 시도하고 있는중이라 효과가 검증되면, 우리 여수시도 포트육묘 이앙 농법을 널리 확대 보급하여 벼농사의 생산비를 줄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포트 파종 작업(돌산 둔전)



▶ 포트 육묘된 모(돌산 둔전)



고추

1. 고추 생육관리

- 터널재배 중인 고추는 생육단계에 따라 비닐을 벗겨내어 고온 장해에 주의한다.
- 고추 웃거름은 정식후 25~30일경 1,000m²당 요소 6kg정도를 포기사이에 구멍을 내어 작은 숟가락으로 한번씩 주거나 점적관수가 설치된 포장에서는 800~1,200배 물비료를 만들어 주고, 이후 2, 3차 웃거름은 1달 간격으로 요소 6kg 칼리 3kg을 헛골에 시비한다.

2. 병충해 방제

○ 역병

- 25cm이상 두둑을 높여 외부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 방지
- 골에 짚이나 부직포 등을 덮어 역병균이 튀어오르는 것 방지
- 연작지 및 발생 우려 포장은 예방위주로 적용약제를 살포 및 토양관주
- 병든 포기는 일찍 제거하고 주위에 적용약제를 관주.

○ 탄저병

- 빗물에 의해 튀어올라 고추에 감염
- 예방 위주는 비오기 전에 과실표면에 고루 묻도록 밑에서 위로 약제를 살포하고, 비온 뒤 병발병시 즉시 적용약제 살포(6월에는 기름방울 같은 연록색 작은 반점형태로 나타나 점차 둥근무늬로 확대되어 궤양증상을 나타냄)
- 병든 열매와 낙엽은 조기 제거하여 병 발생을 줄인다.

○ 고추바이러스병

- 증상은 모자이크, 위축, 괴저줄무늬 등 바이러스종류와 재배 환경, 품종에 따라 다양하며, 최근 2종 이상의 바이러스가 복합감염되어 포기가 노랗게 되거나 위축되고, 줄기의 괴저, 과실의 기형 등 다양한 병 증상이 나타남. 진딧물이 옮기는 경우가 80%이상으로 CMV(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PepMoV(고추얼룩바이러스), BBWV2(잠두위조바이러스)를 매개하며, TSWV(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는 꽃노랑총채 별레가 옮김.
- 진딧물 방제를 철저히 하고, 진딧물의 월동처이며 바이러스를 획득하는 포장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꽃노랑총채 별레는 6월초부터 방제를 시작해야 한다. 소독된 건전종자를 선택하며, 심할 경우 가지과와 콩과 작물이외의 비기주 작물과 돌려짓기 실시



고추역병 발생포장



고추 탄저병징



역병, 탄저병 발생 예방을 위한 두둑높이기 및 부직포 골피복

○ 꽃노랑총채벌레

- 어린 잎을 가해하여 잎이 위축되고, 구부러져 기형을 보임.
- 알은 식물체 조직 속에, 번데기는 토양 속에, 성충은 주로 꽃속이나 잎 뒷면에 있어 방제시 정밀하게 5일 간격으로 세큐어, 렘페이지, 에이팜 등의 적용약제로 3~4회 방제 해야 효과가 있으며, 포장주변 중간기주 잡초(별꽃, 쇠별꽃, 명아주, 쇠비름 등) 제거하기



고추바이러스 피해 증상



고추 꽃노랑 총채벌레



총채벌레 피해증상



마늘·양파



토양소독 중인 포장

- 맑은 날 상처가 나지 않도록 수확하여 밭에서 2~3일간 말리는 것이 좋으며, 뿌리흙을 털기 위해 농기구로 두드리거나, 구끼리 두드리면 인편에 상처가나서 갈변되거나 부패하기 쉽다. 수확 후 건조할 때는 통풍이 잘되고 그늘진 곳에서 건조하고, 그늘망에 넣어 운반하면 상처도 줄이고 운반도 편리하다. 병해충이 발생된 곳에서는 종구용 마늘을 채취하지 않도록 한다.
- 고자리파리, 흑색썩음균핵병, 노균병 등의 병충해가 발생한 포장은 여름철 토양소독 실시

토양소독 : 7~8월에 벗짚을 잘게 썰어 20cm 깊이로 경운하여 이랑을 짓고 담수 후 투명비닐로 피복하거나 토양 개량제(석회질소) 80~100kg/1,000m²를 사용한 후 경운 후 물을 뿐려 비닐로 15일정도 피복 또는 다조메입제 30kg을 파종 2개월 전에 처리한다.

황토유황합제와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채소재배

- 황토유황합제와 자닮오일을 동량으로 섞어 예방시에는 60~80ml, 방제시에는 120~200ml를 잘 혼합한 후 불 20L에 섞어 아침 6시 이전이나 해질녘 이후 잎 뒷면에 뿌린다. 살충살균 효과가 있으며, 약해나 내성이 없고, 연용시 살충효과가 크므로 1주~10일 간격으로 꾸준히 뿌려면 좋음. 화학농약이나 미생물제제와 동시에 사용시 약해가 있으므로 피하고, 1주 정도 간격을 띄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 등의 유용미생물을 7~10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토양에 시용시, 유기물 분해 촉진 및 토양양분 이용도가 증가하여 품질향상, 저장성 증대, 생육촉진, 토양 내 유용미생물 증가, 유해병원균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으나, 방제용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이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단감 주요 병해충 예방과 방제



■ 등근무늬낙엽병

- ☞ 발생시기 : 5월중순~6월말 비가 자주오는해
- ☞ 약제살포 : 6월상순~7월까지 10일 간격으로 3~5회 살포
 - 적용약제 : 온마을, 창가탄, 에이플 등
 - 전년도 이병된 낙엽제거 (소각처리)



• 등근무늬낙엽병 •

■ 흰가루병

- ☞ 발생조건 : 낮은 기온에서 발생
- ☞ 약제살포 : 봄철, 가을철에 약제 살포
 - 적용약제 : 온마을, 라피드, 모두존 등
 - 낙엽을 모아 태우거나 땅에 묻음



• 흰가루병 •

■ 깍지벌레

- ☞ 방제시기 : 6월, 8월, 9월하순 3회 살포
 - 적용약제 : 스미치온, 오신, 바람탄 등
- ☞ 효과적인 방제법
 - 2월하순~3월상순 : 기계유제, 황토유황합제
 - 겨울철 조피작업 후 부화최성기에(6~7월) 약제 살포



• 깍지벌레 •

■ 감꼭지나방

- ☞ 방제시기 : 6월~9월하순 1, 2화기 성충 발생기에 2~3회 살충제 사용
 - 적용약제 : 장원, 초심, 야무진 등
- ☞ 효과적인 방제법
 - 월동유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겨울철 전정과 동시에 거친 껍질을 제거하여 서식처를 제거



• 감꼭지나방 •

뽕나무 열매

“오디”가 익어가는 계절

- 노화억제 물질인 C3G(cyanidin-3-glucoside)가
다량 함유된 천연웰빙 식품 「오디」 -

뽕나무는 옛부터 잎, 줄기, 뿌리, 열매 등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유용한 약용 작물로 이용되어져 왔다. 6월은 맑은 태양아래 텁스럽게 익은 뽕나무 열매 “오디” 수확을 위한 농가들의 분주한 손길이 한창인 계절이다.

여수시에서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2009년 “오디 생산단지 조성 사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로 4년째를 맞아 농가소득을 높이는 효자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매년 재배면적이 늘어나 현재는 65농가 19ha에 재배되고 있고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배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디는 윤기가 흐르고 빛깔이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달고 맛있기 때문에 생식할 수 있으며, 냉동건조하면 오디 특유의 향과 색을 지니고 있어서 술안주, 잼, 과실주, 효소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디는 동의보감 탕액편(湯液篇)에 '까만 오디는 뽕나무의 정령(精靈)이 모여 있는 것이며, 당뇨병에 좋고 오장에 이로우며, 오래먹으면 배고픔을 잊게 해준다(黑桑之精英 盡在於此主消渴利五臟 久服不飢)'고 하고, '귀와 눈을 밝게 한다(明耳目)'라고 했으며, '오디를 오래 먹으면 백발이 검게 변하고 노화를 방지한다(久服 變白不老)'고 기록되어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오디의 노화억제 물질은 항산화색소인 'C3G (cyanidin-3-glucoside)'로 밝혀졌으며, 이는 토코페롤(Vit. E) 보다 7배나 강한 노화억제 효과를 보이며, 오디의 C3G 함량은 1.15%로 포도(0.05%)의 23배, 유색미(0.5%)의 2.3배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효능은 오디의 주색소인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이며, 오디 속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색소 C3G는 천연색소로서, 노화억제, 망막장애의 치료 및 시력개선 효과, 특히 강한 항노화작용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는 것으로 최근 보고됨에 따라 인체에 무해한 천연색소 및 기능성 소재로서 최고의 이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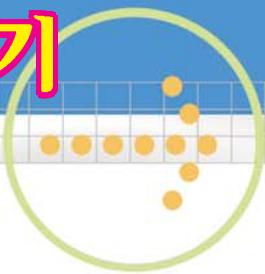
여수에서 생산되는 오디는 당도가 높고 씨가 거의 없는 대과종 품종(과상2호)으로, 생산되는 즉시 농장에서 직거래형태로 판매가 되는 등,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수시는 오디를 기능성 특화작목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물론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기술보급과(☎061-690-2724), 여수시오디농업인연구회(☎010-3621-8878)

건강식품 만들기



오디 엑기스



- 재료 : 오디, 설탕, 유리병, 고무줄, 무명천

- 만드는 방법

1. 오디는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한 다음 오디와 설탕을 같은 비율로 겹겹이 쌓고 유리병에 담아준다.(용기는 플라스틱은 좋지 않고 항아리나 유리병으로 한다)
2. 병위에 뚜껑대신 무명천을 덮은 후 고무줄로 묶어준다.
3. 7일정도 후 효소액이 우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디엑기스가 발효된다.
4. 맛있는 오디엑기스를 드시려면 3~6개월 후에 오디를 건져내고 원액을 보관 한다.
☞ 기호에 따라 생수나, 우유, 요구르트에 희석하여 음용한다.



오디 잼

- 재료 : 오디 500g, 설탕 250g, 레몬즙

- 만드는 방법

1. 오디에 분량의 설탕을 섞어 30분 정도 재워 준다.
2. ①을 냄비에 넣고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적당한 농도가 될 때까지 끓이다가 레몬즙 넣고 마무리 한다.(차가운 물에 잼을 떨어뜨렸을 때 잼이 퍼지지 않으면 완성)
☞ 잼을 만들 때 생기는 거품을 꼭 걷어 주어야 장기간 보관 가능하며, 완성된 잼은 꼭 뜨거운 물로 소독한 후 물기를 없앤 유리병에 보관



친환경 농산물 가격 정보



농림수산식품부

(단위 : 원)

| 쌀 20kg | 서울 | 부산 | 광주 | 순천 | 평균 | 전년동월 |
|-------------|--------|--------|--------|--------|--------|--------|
| 평균 | 90,500 | 83,543 | 82,300 | 81,200 | 80,619 | 80,675 |
| 유기농 | 90,500 | 91,885 | 87,200 | 87,200 | 87,567 | 87,960 |
| 무농약 | - | 75,200 | 77,400 | 75,200 | 73,671 | 73,389 |
| 고구마 1kg | 서울 | 부산 | 광주 | 순천 | 평균 | 전년동월 |
| 평균 | 5,533 | 8,000 | 4,980 | 8,000 | 6,655 | 9,273 |
| 유기농 | 6,485 | - | 4,980 | 8,000 | 6,616 | 9,681 |
| 무농약 | 4,580 | 8,000 | - | - | 6,693 | 8,864 |
| 감자 1kg | 서울 | 부산 | 광주 | 순천 | 평균 | 전년동월 |
| 평균 | 3,090 | 3,000 | 3,730 | 3,000 | 3,411 | 5,224 |
| 유기농 | - | 3,000 | - | 3,000 | 3,390 | 5,300 |
| 무농약 | 3,090 | - | 3,730 | - | 3,432 | 5,147 |
| 깻잎 200g | 서울 | 부산 | 광주 | 순천 | 평균 | 전년동월 |
| 평균 | 6,707 | 8,530 | 5,930 | 6,400 | 6,800 | 6,291 |
| 유기농 | 8,483 | 8,530 | 5,930 | - | 8,091 | 7,417 |
| 무농약 | 4,930 | - | - | 6,400 | 5,508 | 5,164 |
| 풋고추 100g | 서울 | 부산 | 광주 | 순천 | 평균 | 전년동월 |
| 평균 | 1,441 | 1,610 | 1,510 | 1,500 | 1,495 | 1,505 |
| 유기농 | 1,520 | 1,720 | 1,520 | - | 1,577 | 1,610 |
| 무농약 | 1,363 | 1,500 | 1,500 | 1,500 | 1,413 | 1,400 |
| 당근(무세척) 1kg | 서울 | 부산 | 광주 | 순천 | 평균 | 전년동월 |
| 평균 | 8,390 | 8,730 | 9,200 | 7,500 | 8,119 | 4,672 |
| 유기농 | 9,200 | 7,500 | - | 7,500 | 7,829 | 4,833 |
| 무농약 | 7,580 | 9,960 | 9,200 | - | 8,409 | 4,511 |
| 상추(적) 100g | 서울 | 부산 | 광주 | 순천 | 평균 | 전년동월 |
| 평균 | 904 | 1,430 | 1,330 | 1,670 | 1,212 | 1,253 |
| 유기농 | 1,148 | 1,190 | 1,330 | - | 1,153 | 1,234 |
| 무농약 | 660 | 1,670 | - | 1,670 | 1,271 | 1,272 |
| 토마토 1kg | 서울 | 부산 | 광주 | 순천 | 평균 | 전년동월 |
| 평균 | 5,858 | 10,690 | 8,310 | 10,690 | 7,519 | 6,976 |
| 유기농 | 3,380 | - | - | - | 6,022 | 6,170 |
| 무농약 | 8,335 | 10,690 | 8,310 | 10,690 | 9,015 | 7,781 |
| 시금치 1kg | 서울 | 부산 | 광주 | 순천 | 평균 | 전년동월 |
| 평균 | 8,050 | 11,450 | 9,900 | 10,000 | 8,896 | 9,527 |
| 유기농 | 8,050 | 12,900 | 9,900 | 10,000 | 9,226 | 8,744 |
| 무농약 | - | 10,000 | - | - | 8,565 | 10,309 |

자료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3. 5. 9 기준)

자료검색방법 : www.kamis.co.kr (가격정보→친환경농산물정보→품목별가격정보를 이용하면 보다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과 도·소매 정보 등 가격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신속하게 빌려주는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 관련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 여수시 조례 제759호(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 운영방법

- 보유기종 : 54종(31기종) 93대(벼농사 7기종, 밭농사 17, 축산 10, 과수 2, 공용 18)
- 운영기간 : 연중(공휴일 제외)
- 임대장소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 임 대 료 : 유상임대(**임대료 납부 확인 후 임대 가능**)
- 임대기준 : 1농가/1기종/2일이내
- 임대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대형 동력기계 임대는 오후 4시까지)
※ 농업인 희망시 출고 전날 오후 4시 이후부터 출고 가능
-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 대형 동력기계 현지운반서비스 : 농업기술센터 ↔ 현지, 5톤차량 이용
- 대형 동력기계 해당기종 : 트랙터, 콤바인, 스키드스티어로더
- 출고한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사용한 농기계는 세척 후 반납

◎ 농기계 임대절차

직접방문 ⇒ 농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 임대료 납부(수납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 **임대료 납부 확인 후** 임대기종 출고(출고시 안전수칙 교육) ⇒ 영농작업 ⇒ 장비세척 (농가) ⇒ 반납 ⇒ 고장여부 확인 후 입고

※ 임대료는 여수시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 신청 예약방법

- 방문/전화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 061-690-7573(직통전화), 휴대폰 010-5691-7573
- 인터넷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ysagr.go.kr>) 농기계 임대사업 “클릭”



건강한 삶이 장수하는 삶이다.

웃으며 살아 갑시다!

• 짧은 수수께끼 유머모음 •

1.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내기? (모내기)
2. 아무리 예뻐도 미녀라고 못하는 이 사람은? (미남)
3. 사람이 일생동안 가장 많이 하는 소리는? (숨소리)
4. 가장 알찬 사업은? (알(계란)장사)
5. 눈이 녹으면 뭐가 될까? (눈물)
6. 가장 더러운 강은? (요강)
7. 귀는 귀인데 못 듣는 귀는? (뼈다귀)
8. 말은 말인데 타지 못하는 말은? (거짓말)
9.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수제비)
10. 세상에서 제일 큰 코는? (멕시코)
11.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닥)
12. 세상에서 가장 야한 닭은? (홀닭)
13. 가슴의 무게는? (4근(두근+두근))
14. 간장은 간장인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간장은? (애간장)
15. 바가지는 바가지인데 쓰지 못하는 바가지는? (해골바가지)
16. 바닷가에서는 해도 되는 욕은? (해수욕)
17. 발이 두개 달린 소는? (이발소)
18. 배울 것 다 배워도 여전히 배우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배우)
19. 벌레 중 가장 빠른 벌레는? (바퀴벌레(바퀴가 있으니까))
20.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리는? (걱정거리)
21. 사람이 즐겨 먹는 피는? (커피)
22. 아홉명의 자식을 세자로 줄이면? (아이구)
23. 약은 약인데 아껴 먹어야 하는 약은? (절약)
24. 낭떠러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싸는 뚩은? (떨어질뚱 말뚱, 죽을뚱 살뚱)
25. 떡 중에 가장 빨리 먹는 떡은? (헐레벌떡)
26. 똥은 똥인데 다른 곳으로 튀는 똥은? (불뚱)
27. 똥의 성은? (응가)
28. 먹고 살기 위하여 누구나 한가지씩 배워야 하는 술은? (기술)
29. 목수도 고칠 수 없는 집은? (고집)
30. 묵은 묵인데 먹지 못하는 묵은? (침묵)

여수시농업체험학습장 대체숙박시설 운영

◎ 대체숙박시설 운영계획

- 운영기간 : '13. 4. 20 ~ 10. 20(184일간)
- 운영주체 : 기술보급과
- 신청방법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ysagr.yeosu.go.kr>) 및 전화(061-690-2723)

◎ 숙박시설 현황

- 숙박 · 부대시설 : 484m²
 - 본관 2층(311m²) : 숙소, 다목적강당 · 숙소, 화장실
 - 별관 1 · 2층(173m²) : 세미나실, 세면장, 샤워실, 간이취사장
- 숙박가능인원 : 50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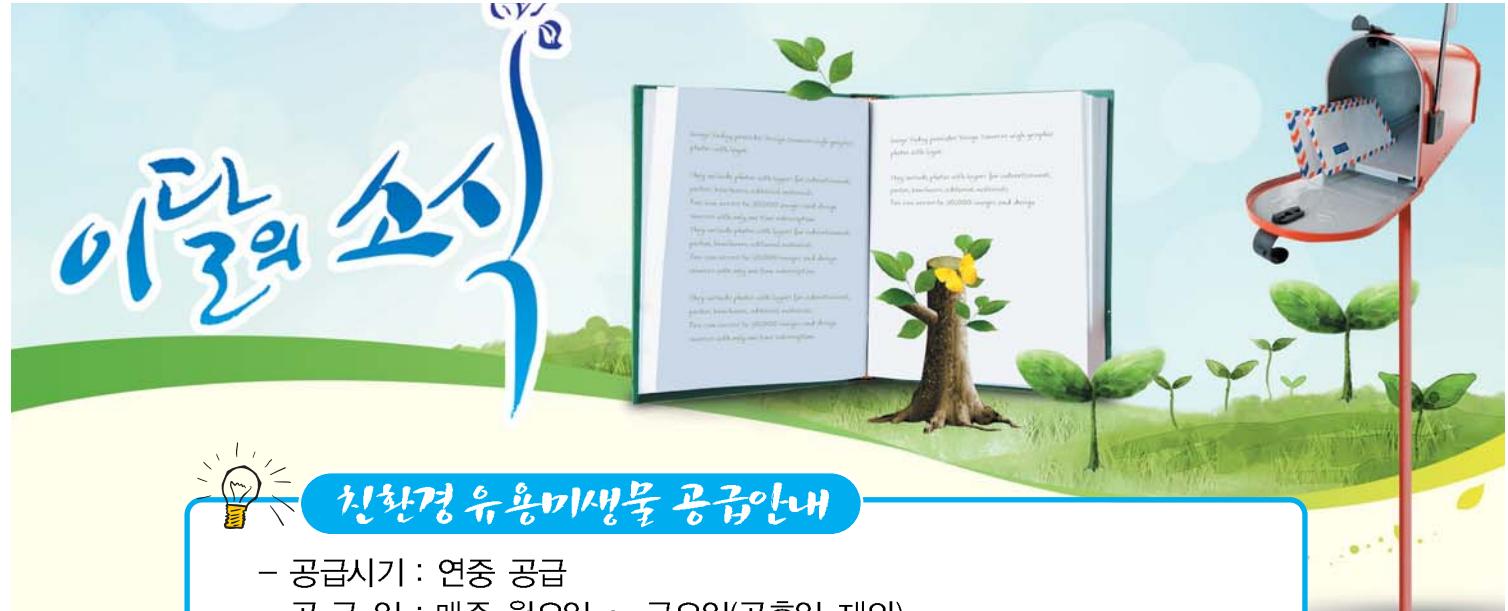
※ 세면도구 및 취사도구는 제공하지 않음

◎ 시설사용

- 사용시간
 - 세미나실 · 다목적 강당(교육관) : 09:00 ~ 20:00
 - 생활관 : 오후 1:00 ~ 다음날 오전 11:00
- 사용료

| 구 분 | 적용기준 | 사용료(원) | | 비 고 |
|-----------------------|------|---------|--------------|------------------------|
| | | 성 인 |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 |
| 세미나실 · 다목적강당 (교육관) | 4시간 | 100,000 | 70,000 | 1시간 초과시 마다 20,000원(성인) |
| | 8시간 | 180,000 | 130,000 | 15,000원(유치원생, 학생) |
| 생활관 | 20인실 | 180,000 | 130,000 | 20인까지 |
| | 10인실 | 100,000 | 70,000 | 10인까지 |
| 교육관을 숙소로 이용시 | 30인실 | 240,000 | 160,000 | 다목적강당 |
| | 20인실 | 160,000 | 110,000 | 세미나실 |

※ 숙박시설 사용료 기준정원 초과할 경우 : 1인당 성인 4,000원,
유치원생, 초 · 중 · 고등학생 2,000원 추가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안내

- 공급시기 : 연중 공급
- 공급일 : 매주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 공급대상
 - 무상공급 : 친환경인증을 받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
 - 유상공급 : 여수시민 300원/ℓ, 여수시 법인 및 단체 500원/ℓ, 여수시민이외의 자 1,000원/ℓ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여수시 주동1길 32 (주삼동)
☎ 061-690-7270 Fax 061-690-8133

• 2013년도 여수시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새누리벼, 황금누리, 호풀벼 입니다.

24절기 알아보기



♣ 망종(芒種) : 6월 5일

24절기 중 아홉번째로 씨를 뿌리기 좋은 시기라는 뜻으로 모내기와 보리베기가 이뤄진다. 각 지역별로 다양한 망종 풍속을 갖는데, 농사의 한 해 운을 보거나 농사가 잘 되기를 빌었다. 농촌에서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 하지(夏至) : 6월 21일

망종(芒種)과 소서(小暑) 사이에 있다.
하지 때는 일 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하지 이후에는 기온이 상승하여 몹시 더워 진다. 한국의 농사력에서는 모내기가 끝나는 시기이며 장마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다.

- 농업인 여러분의 농사 길잡이인 「이달의 농업기술 이끄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잘 읽어 보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좋은 정보는 이웃에게 알리어 올해 농사도 알찬 결실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061) 690-2721~2724 Fax. 690-8133
<http://ysagr.yeosu.go.kr>